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 우편집중국 소포 우편물 구분기에서 직원들이 우편물을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된 소포 우편물은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28개 우편집중국과 교환센터로 배달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연말연시 쌍암동 광주 우편집중국 가 보니 ...

“바쁘다 바빠” 우편물과 전쟁 중

“수많은 사연·정성 분류하느라 설 틈 없어요”

“송년회요? 꿈도 못 꾸요, 연말연시는 우리에게 제일 바쁜 시간이예요. 수많은 사연과 정성이 담긴 우편물과 소포들 때문에 설 틈이 없어요.” 지난 6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 우편집중국(연면적 1만8840㎡) 작업장. 20여명의 우편물 분류 요원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소중한 마음이 담긴 카드와 편지도 넘쳐났다. 언뜻 봐도 수 만장이 넘었다. 분주한 손놀림 속에 수 만장의 우편물은 금세 사라졌다. 황난희(여·42) 우편물 영업팀장이 수북이 쌓인 우편물 속에서 엮서 한 장을 재빠르게 낚아챘다. 우편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엮서였다. 우편번호 등이 적혀 있는 많은 우편물의 경우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이 골라내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시스템상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업장 한쪽에는 중·소형 소포가 가득했다. 분류 요원들이 가로 40cm·세로 40cm 미만의 소포 상자를 소형 구분기에 차례로 올렸다. 순간 수십여 개의 소형 소포가 각 지역별로 흩어졌다. 기계가 바코드를 인식, 자동으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것이다. 물량이 많은 탓에 2대의 자동 기계로 처리되지 못한 소포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뒤, 일반 직원 20명에 의해 수작업을 통해 지역별로 구분되는 완전 수동 방식도 곁들여지고 있었다. 광주 우편집중국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211곳의 우체국이 접수받은 통상·소포우편물을 전국 28개 우편집중국과 교환센터로 보내주고 있다.

이달 들어 하루 작업량은 총 767만 6466통이다. 이는 평소 작업량 695만 6480통보다 10.34%(71만9986통) 많다. 하지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보편화 되면서 통상 우편물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1월 30일 현재 통상 우편물은 모두 7321만5545통. 이는 전년 대비 7394만3047통 보다 0.98%(72만7502통) 감소했다. 반면, 소포 우편물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소포 우편물은 663만 6699개로 전년 대비 631만7853개 보다 5.04%(31만8846통) 늘었다. 정상준(51) 광주 우편집중국장은 “연말연시가 되면 넘쳐나는 연하장·엽서·달력을 분류하느라 바빠는데, 현재는 일반 우편물 보다는 소포 우편물을 구분하느라 바빠다”면서 “내년에 따뜻한 소식만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사회적 약자 위한 치안 확립 경찰 인사정의 실현 하겠다”

임승택 전남경찰청장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정의로 운 경찰상을 구현하고, 조직내 인사정의 실현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신임 임승택(54) 전남지방경찰청장은 7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의 업무 수행에 있어 억울한 사람과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의 보호자로 진솔하게 다가가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또 “경찰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지역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경찰행정에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청장은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과거 인사태 빛어졌던 외부청탁 문제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반드시



경찰 개인의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남 도민의 안녕을 위해선 ‘국민 우선, 현장 존중’의 치안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전남 경찰의 내부 소통과 화합, 개혁 마인드 부양 등을 통해 치안의 중책을 수행해 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81년 특차 간부후보 1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 마포경찰서장, 서울청 기동단장, 경찰청 G 20기획단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남부경찰, 음주운전 근절대책 평가 전국 1위

광주남부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추진대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남부경찰은 7일 “경찰청이 실시한 ‘2010년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추진대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1급지 경찰서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통사망 사고 증감률 ▲음주운전 사망증감률 ▲음주운전 단속 증감률 ▲음주운전 금지 홍보 실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이뤄졌다.

남부경찰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 79.10점으로, 전국 1급지 경찰서 134곳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특히 남부경찰은 지난해 총 4건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를 올해 1건으로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봉기 남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맞물려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급지 경찰서와 지방청별 평가에서는 영광경찰과 광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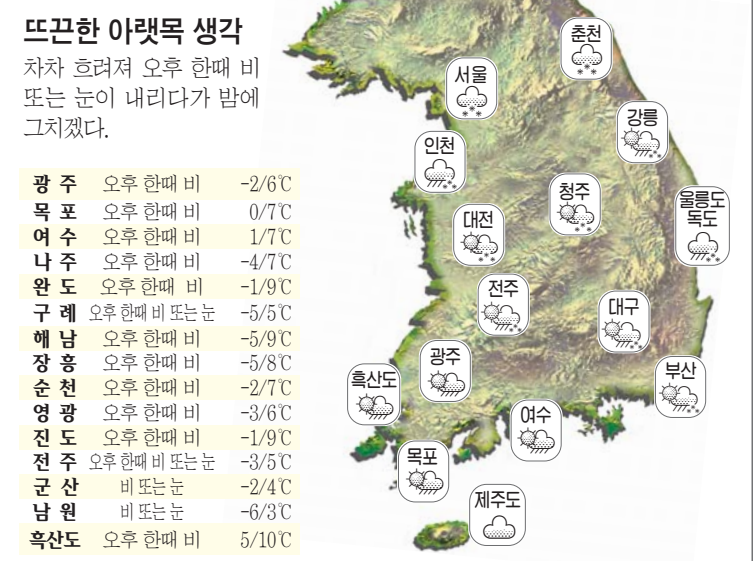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spee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section for sea weather (바다) and a daily weather summary (주안날씨).

공공 안 아침 ... 오후엔 눈·비

8일 광주·전남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한두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북지역은 오전부터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해 오후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8일 광주·전남·북지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밤부터 점차 그치겠다”고 7일 예보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8일 오후부터, 전북 지역은 이날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며, 전북지역 예상 강수량은 5~10mm·예상 적설량은 2~5cm다. 지리산 등 전남·북 동부 내륙 산간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어 등산객과 차량은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하겠다.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5도~9도며, 전북지역은 영하 7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2도~6도가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 brand domestic security devices. Features a knight on a horse logo and tex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Advertisement for '가맹점 모집' (Franchise Recruitment) for '명품두부' (Premium Tofu). Includes details about the product, business model, and contact information: '062) 383-0029, 080-335-0202'.

Advertisement for '소풍닷컴' (Esopung.com) featuring a cruise to Jeju Island. Promotional offer: '제주도 여행 1박 2일 79,000원'. Includes details about the cruise package and contact info: '064-745-0963'.